

##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귀국 보고서

성명	학번	소속(대학,과,전공)	
전선미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프로그램	정규교환	파견국가 및 대학	프랑스 파리 소르본 누벨
파견기간	2021-2 2022-1	연락처	

### 1. 파견대학에 관한 기본 정보

소르본 누벨은 국립 대학 중 하나입니다. 아마 저를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혹 다음 파리 쪽 교환대를 알아보신다면 이날코를 추천합니다. 한국어학과가 있고, 만약 한국 학생이 교환을 가면 이날코 대학생들과 버디 프로그램을 맺어주고 학교 생활과 전반적인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르본 누벨은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 2. 지역 및 생활에 관한 기본 정보

파리와 리옹에 둘 다 교환학생과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역시 파리는 물가와 생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소르본 누벨과 Crous라는 국립 기숙 시설이 연계되어 있어 감사하게 월세 50만원에 지냈지만 다른 기숙사에 지내는 친구들은 60-90만원의 월세를 냈습니다. 개인 스튜디오를 구하게 되면 100만원은 기본으로 든다고 합니다. 또한 파리 1존이 아닌 2존에 집을 구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 2존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월세가 저렴하고 동네가 조용합니다. 18,19,20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밤 늦은 시간에 다니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3. 수강과목 및 수업활동에 관한 정보

수강신청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수업 시간표들이 쏙 나오면, 파리 학교 쪽 교환 담당자에게 제가 원하는 수업들의 학수번호, 시간, 그룹, 교수 이름을 일일이 적어 이메일을 보내고 몇 주를 기다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가 수강신청한 수업들이 업로드 됩니다. 일일이 하다보니 담당자가 그룹이나 시간을 잘못 올리는 경우가 빈번했고,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번거로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무실을 폐쇄했고 오직 이메일로만 주고 받아야한다는 것이 기다림에 있어 힘들었습니다. 또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가 학생으로 등록이 안돼 초반 한 달 정도는 교수님들 학생 리스트에 제가 없어 수업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결강이나 자료들을 받지 못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인지라 상명대에서 저 혼자 파리에 교환을 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한 학기동안 2번이상 결강했습니다. 보강 또한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시험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증명서와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이메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과락시킨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이고 프랑스어가 유창하지 못함을 배려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신다거나 강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해주시고 제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귀찮은 내색없이 대답해주신 교수님도 계셨고, 교환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먼저 물어보고 위로해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같은 강의를 듣는 모든 친구들 또한 친절했습니다. 저는 다가감에 스스럼없어서 말도 먼저 걸고 질문도 많이 했더니 그 모습에 친구들도 편하게 대해주고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학교 수업이나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도와줄 것입니다.

### 4. 기타 수업 외 활동에 관한 정보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프랑스에는 whatsapp이 있습니다. 이 채팅 어플로 거의 모든 교환친구들과 연락했습니다. 교수님도요. 제가 전공선택한 전공의 단톡방도 있었고 기숙사 단톡방도 있었습니다. 한 학기동안은 알 방법이 없어서 모르고 지냈는데, 알고 나선 여러 도움을 많이 받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위한 언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오직 교환학생을 위한 수업입니다. DELF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다들 비슷한 레벨과 처지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질문하고 뱉고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성취한 것에 관한 정보

저는 사실 늦게 간 편이라 학점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선 3학점인 강의가 상명대에 서 환산되면 1학점 혹은 2학점이기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갈 계획이 있다면 1,2학년때 특히 전공 강의를 많이 들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학기때 8강의 2학기때 9강의를 듣느라 시간적으로,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누군가의 도움없이 혼자 지내는 법, 혼자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내면서 힘든 일이 생겨서 주저 않아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자신이었고 이제는 금방 침착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다른 문화로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웠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걸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과 스몰토크하는 것을 좋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17강의중 12개밖에 이수하지 못했지만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어도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 어로 영어권 수업을 들으려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겐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중간 중간 여행을 다니 면서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Delf B2를 6월 말 파리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여행 사이에 있는 자격증 시험이라 떨어질 확률이 크지만 경험삼아 쳐보려고 합니다.

#### 6. 기타 참고사항(도착 후 해야할 일, 비자 신청, 현지 생활 등 관련 팁)

비자 신청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파리 교환학생 다녀온 모든 사람들의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선배들의 귀국 보고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아마 도착하면 행정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터라 그런 해야할 일들은 한국에서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프잘사'라는 네 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생활 도움이나 행정, 교환생활 등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100명 넘는 파리에 사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친구도 만날 수 있 고 도움을 받고 또 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도어락이 아닌 열쇠여서 분명 열쇠를 집 안에 두 고 나오는 일이 생길겁니다. 그럴때 엑스레이 사진(치과에서 찍는) 혹은 페트병을 잘라 펼쳐 문사이에 넣고 비벼 넣으면 틈이 벌어져 열릴것입니다. 사람 부르려면 15-30만원 부르는데 값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생겨 도 결국 해결될 것이니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해외에 나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흔치않고 값진 일입니다. 보통 한학기 교환학생분이시던데 한국으로 들어가면 많은 후 회를 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돌아다닐걸, 집에 있지말고 일단 나가볼걸, 학교 생활 더 열심히 해볼걸 하면 서요. 저는 오기 전부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왔기 때문에 귀국 한 달 반 정도를 남겨놓고 후회 없습니다. 정말 파리지앵처럼 사는 경험도 해보았고 파리라는 좋은 위치에서 근교 해외여행 국내여행도 많 이 다녔습니다.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났고 스쳐지나가는 감사한 인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심할 때 왔었는데 이제 거의 완화되는 단계이니 곧 가시는 분들은 더 많이 즐기고 느끼고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 습니다.